

작성해주신 질문의 흐름은 매우 명확하고 전략적입니다. 현재 2026년의 채용 시장은 **코딩만 할 줄 아는 개발자**보다 **'비즈니스 현장의 비효율을 기술로 즉시 해결하는 오퍼레이터'**를 더 필요로 하는 추세입니다.

특히 **Revenue Operations (매출 운영), HR Operations (인사 운영)**, 경영지원 등의 직군은 전통적으로 엑셀과 수작업 의존도가 높았으나,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기도 합니다. 주니어 개발자로서 이 시장에 진입할 때, **"나는 개발을 할 줄 알기에 당신들의 야근을 없애줄 수 있다"**는 메시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

이러한 전략에 맞춰, 실무자들에게 즉각적인 효용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.

1. [실용성 중심] "단순 반복 업무 0초" - 원클릭 정산 및 리포트 자동화 시스템

이 프로젝트는 **'어려운 기술'**이 아니라 **'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술'**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. 많은 사무직이 겪는 엑셀 지옥(VLOOKUP, 피벗 테이블 반복 작업)을 파이썬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.

- 추천 직무: 재무/회계 보조, 마케팅 운영(광고 데이터 취합), 영업 관리(실적 취합)
- 기술 스택 (난이도: 하)
 - **Core:** Python, Pandas (데이터 가공)
 - **UI:** Streamlit (가장 빠르게 웹 화면을 만들 수 있음)
 - **Office:** Openpyxl (엑셀 서식 유지), Gmail API (메일 발송)
- 프로젝트 개요:
 - 문제 상황: 매주/매월 각 부서에서 날아오는 양식이 제각각인 엑셀 파일 50개를 취합하여, 특정 포맷의 '주간 보고서'를 만들고, 이상 수치(오타, 누락)를 찾아내는 과정이 4시간씩 걸림.
 - 해결 솔루션: 웹 페이지(Streamlit)에 엑셀 파일들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, 파이썬이 1초 만에 포맷을 통일하고(Pandas), 오타를 검증한 뒤, 최종 보고서 파일을 생성하여 팀장님 메일로 자동 발송하는 툴.
- 이것이 왜 먹히는가? (채용 시장 근거)
 - 실무 밀착형 인재: 기업은 거창한 AI 모델보다 당장 팀의 업무 시간을 줄여줄 사람을 원합니다. "입사하면 팀원들의 엑셀 업무 시간을 90% 단축시키겠습니다"라고 제안서에 쓸 수 있습니다.
 - 데이터 리터러시: 사무직군 채용 시 가장 우대하는 역량은 '데이터 전처리 능력'입니다.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지원자들은 엑셀 매크로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압도적인 차별화가 가능합니다.

2. [차별화 중심] "사내 규정/계약서 검토 AI 비서" - RAG 기반 문서 분석 에이전트

이 프로젝트는 단순 계산이 아닌, '판단'과 '검색'의 영역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. 최근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**RAG(검색 증강 생성)** 기술을 활용하되, 복잡한 개발 지식보다는 '도구 활용 능력'을 어필합니다.

- 추천 직무: 인사(HR), 법무 지원, 총무, CS(고객 응대) 관리
- 기술 스택 (난이도: 상)
 - **AI Framework:** LangChain (LLM 오케스트레이션)
 - **Database:** ChromaDB 또는 FAISS (무료 벡터 DB)
 - **Model:** OpenAI API (GPT-4o) 또는 Claude API
- 프로젝트 개요:
 - 문제 상황: 신입사원이나 직원들이 "경조사 휴가가 며칠인가요?", "이 계약서 조항이 우리 회사 내규에 맞나요?"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담당자가 수백 페이지짜리 규정집(PDF)을 뒤져서 답변해야 함.
 - 해결 솔루션: 회사의 모든 규정집(PDF, Word)과 과거 질의응답 내역을 벡터 DB에 저장합니다.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, AI가 관련 규정을 찾아 근거 조항을 제시하며 답변을 생성해줍니다. (예: "경조사 규정 14조에 따라 3일 휴가 가능합니다.")
- 이것이 왜 먹히는가? (채용 시장 근거)
 - 비정형 데이터 처리 능력: 엑셀(정형 데이터)을 넘어 텍스트(비정형 데이터)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사무직으로서 엄청난 경쟁력입니다.
 - AI 협업 능력: 단순히 챗GPT를 쓰는 게 아니라, '우리 회사만의 데이터'를 AI에 학습(엄밀히는 참조)시키는 방법을 아는 인재는 현재 모든 기업이 찾고 있는 'AI Ops(AI 운영)' 인재상에 부합합니다.

전략적 조언: 어떤 포지션(Job Title)을 찾아야 할까?

주니어 개발자 출신으로서 백엔드가 아닌 이쪽 루트를 탄다면, 채용 공고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찾아보세요. 개발자 연봉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.

1. **Sales / Marketing Operations (세일즈/마케팅 오퍼레이션):** 영업팀이 영업만 잘하게 데이터를 셋팅해주는 역할입니다. (프로젝트 1번 활용)
2. **Business Analyst (비즈니스 분석가):** SQL과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뽑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.
3. **HR Tech / People Analytics:**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. (프로젝트 2번 활용)

결론적으로: 1번 프로젝트로 "당장의 업무 효율성"을 증명하고, 2번 프로젝트로 "미래 지향적인 AI 활용 능력"을 보여주세요.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*******개발도 할 줄 아는, 일 잘하는 사무직 인재 *******로 포지셔닝한다면, IT 기업의 비개발 직군이나 일반 대기업의 DX(디지털 전환) 팀에서 매우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.